



롱비치 선원교회가 창립됐다.

세계에서 온 선원들, 세계로 파송할 선원교회

팔팔까지 복음을 전할 교두보, 롱비치 항구에 선원들을 위한 교회가 창립됐다.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롱비치 선원교회 창립예배에서 담임 김만영 목사는 “각국에서 온 현지 선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자신들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꿈을 꾀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는 김 목사가 부목사로 섬겼던 예수인교회의 박정환 담임목사가 “반석의 교회”란 제목으로 전했다. 또 성서장로교회 나민

주 원로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이호민 목사, 베다니교회 송진엽 목사 등이 참석해 식순을 맡으며 축하했다. 교회 주소) 120 S. Pico Ave. Long Beach, CA 90802 교회 전화) 714-356-7888



남가주목사회 사모 힐링 캠프를 마친 후 기념 촬영.

사모님 힘내세요!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 주최로 레이크로호드에서 제 1회 사모 힐링 캠프가 열렸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들이 참석해 영육 간에 위로와 제충전을 얻는 시간이었다.

피종진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집회를 인도했고 “깨끗한 새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다.

또 히즈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인기 배우 신애라 집사가 특별강사로 나서서 강의했다. 신 집

사는 사모들을 향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신 집사는 “사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세워주는 큰 임무를 맡은 리더이자 직분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에는 사모가 아니지만, 목회자 자녀인 임혜빈 대표(KCCD/FACE)가 참석해 사모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다. **셀비 권 기자**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들 사순절 찬양제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 연합회가 찬양제를 개최했다.

엄규서 목사, 43대 회장 취임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 연합회가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연합찬양제를 개최했다. 이번 찬양제는 고난의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제43대 회장 엄규서 목사가 공식 취임하는 취임식도 겸했다.

11일 오후 6시 나성중앙교회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월서크리스천교회, 사우스베이크리스천교회, 나성중앙교회, 실버레이크교회, 예수비전교회, 산타모니카교회, 보라교회, 나눔동산교회 등 소속 교회들이 다

수 참여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 또 마지막 순서로 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사모 부부들이 합창해 더욱 연합의 의미가 컸다.

찬양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이성도 목사(나성중앙교회)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엄규서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엄 목사는 “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전진하겠다”면서 “은 교회가 서로 연대해 협력, 상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월서크리스천교회를 담임하는 엄규서 목사는 제49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계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방주교회의 3월 사랑의 점심식사 모습

사랑 나누는 데에 교단 구분 있나요?

매달 독거노인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방주교회가 지난 3월 8일에도 어김없이 중앙루터교회에서 ‘사랑의 점심식사’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헌금했다. 방주교회와 중앙루터교회는 같은 루터교단이지만 나성순복음교회는 그렇

지 않다. 그러나 나성순복음교회는 방주교회의 노인 사역을 돕는 의미에서 이번 헌금을 전달했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수년째 추수감사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지역사회를 돕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주교회도 이 헌금으로 후원했다.

여러분의 도우미
카카오 렌트카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가 필요하신가요?
 KOREA TOWN
877-251-4489
CACAO RENTAL CAR
 286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크레딧 카드 없는 분
- 국제운전면허증
- 타운 내 공항 픽업
- 장기 렌트카
- 보험청구 렌트카
- \$18/일, \$350/월부터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2018년
 40일 하프타임 하나님 나라 클리닉

“40일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3)

■ **일자** : 4월 1일(화) ~ 5월 10일(목)
 ■ **장소** :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원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Canada V4N1J8 캐나다 밴쿠버

■ **대상** : 후반기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
 ■ **비용** : CAD1,500불 / 부부 2,500불 (USD 1,200불 / 부부 2,000불) (선교사 장학금 혜택)
 ■ **등록** : admin.ictc@gmail.com (604)535-1800

함께 하시는 강사님들

고승희 목사, 김광빈 목사, 김광철 선교사, 박노진 목사, 박현승 목사, 송주한 목사, 양승훈 교수, 오석환 선교사, 유용원 목사, 이병희 목사/ 이희숙 목사, 이수경 목사, 이영환 목사, 이영희 목사, 이종근 목사, 이형석 목사, 임현수 목사, 김현철 목사, 정성자 권사, 최재이 목사, 홍원기 목사 외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조직 (IV)

한국 교회의 조직 중 감리교회의 그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리교회는 한국에서 장로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선교하였지만, 그 정치체도가 장로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창립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미 북감리교회는 1897년 서울 구역회(Seoul Circuit)를 설치함으로써 교회 조직을 시작하였다. 이 구역회는 한국 선교회(The Korea Mission)의 산하 조직으로 있다 1901년에 세계 지방으로 분류되었다. 즉 인천을 중심한 서지방회, 평양을 중심한 북지방회, 서울을 중심한 남지방회이다. 이 지방회의 분립은 1905년 6월에 한국선교연회(年會: The Korea Mission Conference)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을 경과하면서 이듬해인 1908년 3월에 정동교회에서 감리교회의 완전한 조직인 '한국연회'(The Korean Annual Conference)가 창설되었다. 이 연회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해리스(M. C. Harris)가 주재하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주한 미국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 교회로부터 한국 감리교회 연회로 이명하여 한국 감리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한편 미국 남감리회는 1897년 9월에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당시는 중국연회에 속하였으나, 12월에 한국선교회로 독립하여, 1914년에 한국연회로 조직됐다. 1918년 맥머리(W. F. McMurry) 감독이 한국에 주재하면서 그 해 10월 개성에서 정식으로 '한국연회'가 출범하였다.

남·북 감리교회는 오랫동안 각각의 조직을 운영하다 1930년에야 비로소 '조선감리교의 합동과 조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조선감리교회 창립총회를 협성신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 때, 남·북 감리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가 됐다. 제1대 총리사로 양주삼(梁柱三) 목사가 추대되었다. 장로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남·북 장로회가 합동하여 선교하고 1907년 한 장로교회를 이룬 데 반해, 감리교회는 30년대에 와서야 때늦은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로교회와 더불어 한국에서 개신교로서는 두 번째의 큰 교단이 하나된 것은 에큐메니컬 정신의 또

다른 구현이었다.

다음은 성결교회(聖潔教會)를 살펴보자. 이 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처럼 세계적인 기구의 교회가 아니었고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OMS로 약칭)가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가 그 모체다. 동양선교회는 1901년 동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표로 일본 동경에 왔던 카우만(C. E. Cowman)과 킬보른(E. A. Kilbourne) 두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선교 단체다. 카우만은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전기 기술자로 1894년 9월 시카고의 무디(D. L. Moody)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곧 무디성경학교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은 후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01년 그는 아내와 더불어 어느 교회의 소속이나 후원도 없이 유일한 재산인 부인의 피아노를 팔아 여비를 마련하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부인과 함께 동경에 도착했다. 방 한 칸을 얻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란 간판을 걸고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02년 카우만은 전에 직장 동료였던 킬보른에게 함께 선교하기를 권해, 그를 동경으로 불렀다. 킬보른은 친구 카우만의 전도로 신학을 공부하고 1902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다. 킬보른이 동경에 오자 이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시카고의 무디성경학교를 본 따, 성서학원을 개설하고 전도자를 양성하면서 전도에 힘썼다. 처음, 그들은 교파를 형성할 의향이 없었으므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아무 교회나 가라고 권했으나 차차 추종자들이 늘어나자 어쩔 수 없이 1904년 11월 전도관(교회)과 성

서학원을 한데 묶어 동경에서 '동양선교회'를 창설하였다. 이 때 이 선교회의 목적을 '동양 모든 나라에 순복음(full gospel)을 전하고자 함이라' 천명하였다.

일본 각지에서 열성 있는 젊은이들이 성서학원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한국에서 김상준(金相濬), 정빈(鄭彬) 두 사람이 와서 공부하였다. 이들은 성서학원을 마치고 귀국하여 1907년 5월 현재 성결교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 무교동에 기와집 한 채를 사고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란 간판을 걸고 전도를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일본 동양선교회에 성서학원 설립을 요청하였는데, 마침 1908년 8월 동양선교회의 후원자 한 사람이 4천 달러를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카우만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상황을 사찰하고 돌아갔다. 그 후 여러 사람이 서울 선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 주어 무교동에 큰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11년 3월 성서학원이 무교동 전도관에서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이듬해 5월 총정로에 새 교사를 건축하고 이전하였다.

1910년 12월 동양선교회 지부를 서울에 세우고 '만국사도성경연합' 명의로 파송된 영국인 존 토마스(J. Thomas) 목사가 초대감독으로 내한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부인이 병들자 귀국하였다. 1920년 킬보른이 한국에 제2대 감독으로 내한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교파 의식 없이 전도하였으나,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21년 전도관을 교회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성결교회가 목사를 독자적으로 안수한 것은 1914년 7월이다. 총회가 조직되면서 1922년부터 교단지 「활천」(活泉)을 창간하였으며 1929년 2월 성결교회 제1회 연회를 개최하였다. 1932년 봉천과 하얼빈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지까지 선교구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36년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분립해 나가는 아픔도 겪게 되었다.



세미나에서 캐롤 리 부사장이 특강하고 있다.

교회 및 기도원 구매 세미나 열려 뉴스타, 남가주목사회, 여성목사회 공동으로

뉴스타부동산과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가 함께 "목회자 초청 자체 건물, 기도원, 사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자체 건물이나 기도원 구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목회자 사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목사, 사모, 전도사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약 100여 명이 참석

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남문기 명예회장(뉴스타부동산)과 캐롤 리 부사장이 참석해 특강을 전했다. 또 에로우파이낸스, 시카고타이틀 등 부동산 관련 전문업체에서도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에 앞선 예배에서는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목적의 중요성(고전10: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교 관계자들이 LA에서 사역을 보고했다.

글로벌선진학교 위해 기도 요청 다양한 장학금과 스포츠 특기생도 주목

글로벌선진학교(GVCS)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일 LA를 방문해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와 후원,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 총북 음성에서 2004년 출발한 글로벌선진학교는 2011년 경북 문경 캠퍼스를 개교한 데 이어 2015년 현대 교육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심장부에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를 개교했다.

약 185에이커에 달하는 부지 위에 80여 개의 빌딩이 세워져 있는 이 캠퍼스는 제3세계 현지 학생들과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PK, MK)를 위한 특별 장학제도도 갖추고 있다. 음경과 문경 캠퍼스 출신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다수의 명문대에 입학했기에,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졸업생들도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입학에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뿐 아니라 스포츠 인재들과 특기생들도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더욱 기대된다.

문의) 714-742-2674

셀비 권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웨징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회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정관리원장 겸립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O) 특허물질인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8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신앙생활에서의 아빠 효과

아빠 효과에 대한 연구는 1960년 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스 D. 파크 교수는 “아빠 효과”(Father Effects)라는 말을 개념화해 유행시켰다. 아빠 효과란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 습관 등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 아이의 삶과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효과 즉, 자녀 교육에 아빠가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 대인관계 등 아이의 모든 면에서 아빠가 아이와 많은 교류를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결과, 아빠와의 교류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이에게 아빠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오 중 숙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임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하고 배우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모습도 기도하는 아빠를 통해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둘째, 성경 읽는 아빠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즉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한다. 성경 읽는 아빠의 모습 그 자체로도 자녀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 배경에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는 유대인 아버지의 자녀교육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최우선이고 그다음 인성교육, 학교 교육 순서인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인성교육, 신앙교육 순서라는 현실 속에 아버지의 역할을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집에서 성경을 통한 신앙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

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친근한 아빠의 권위를 배우게 되고,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함께 또는 각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빠와 대화의 통로를 갖게 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아빠는 사춘기 자녀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셋째, 주일을 성수하는 아빠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제정하신 것이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성수의 신앙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부족한 잠, 가족 여행, 지인들과 모임 등의 갖가지 유혹으로 인해 주일성수 신앙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찰스 핫지는 주일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주일날 낚시하러 가거나 골프를 하러 가기보다는 자녀들 손 잡고 주일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일성수를 하는 아빠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아빠의 모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한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한 아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도하는 아빠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를 위탁받은 자로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특권 즉, 축도권도 함께 부여받았다. 성경에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대표적인 축도인 노아의 축도(창9:26-27), 이삭의 축도(창27:27-29)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기도, 그것은 곧 자녀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부모의 기도만큼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아빠 효과이다. 결국, 기도하는 아빠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의 소원을 간절히 구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다. 더불어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하나



한국 고아원 친구들을 돕기 위해 위드뮤직이 제3회 공연을 준비 중이다.

“음악으로 고아원 친구 도와요”

위드뮤직(대표 소프라노 사라 정) 주최로 제3회 음악회가 USC 대학 강당에서 4월 29일(주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위드뮤직은 제1회, 2회 음악회를 통해 셰어링러브라는 미국 변호사 단체와 함께 기금을 모아 한국 고아원에 있는 ‘신애원’이란 고아원에 악기를 보내고, 그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위드뮤직 회장에는 조슈아 리 학생, 부회장에는 에일린 정 학생이 활동하고 있으며 브랜든 박, 로이 김, 피오레 정 학생이 보드 단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신애원 친구들을 돕기 위해 이번 제3회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한편, 사라 정 대표와 피아니스트 서문민 씨는 한인교회를 순회하며 음악 힐링캠프를 열 계획 중이다.



시인 장석운 박사가 출판 감사모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출판

시인 장석운 박사 출판 감사모임 열려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옥스포드 팰라스호텔 2층 연회실에서 의미 있는 출판 감사모임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원로인 장석운 박사(육사 11기)의 시집 “이것이 인생이다”의 출판 감사모임이었다.

여러 문인들, 육·해·공군 예비역 관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인 장석운 박사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여러 지인들의 시 낭송, 장 박사의 피아노 독주, 그리고 인사 등의 순서들로 호텔 연회석은 봄향기가 가득

했다. 장 박사는 군인으로, 공학 박사, 교회 장로로, 문학가로,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즐기는 음악가로 살아가는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후배들과 성도들, 그리고 동료 문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 박사는 일찌기 유학길에 올라 학위를 받고 미국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 신앙인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임관 동기인 그는 정치 군인들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다양한 행사 준비

지난 3월 7일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남가주기쁨의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설교는 주해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가 했다. 이 단체는 부활절 연합예배, 목회자수련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 연합찬양제 등을 준비 중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방 해제로?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6>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중동의 선교 현장 이야기 (1)

필자는 과거에 故 랄프 윈터 목사님의 저서인 <미션 퍼스펙티브>를 공부하며 세계선교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미전도종족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달았다. 1989년 세계 전체 2만여 종족 중에 1만1천여 종족이 미전도종족이었다. 20년이 지난 2010년 당시, 그 미전도종족 수가 1,500여 종족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년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얻은 큰 결과다. 가히 지난 2천년 간의 선교 실적과 맞먹는 선교 열매를 20년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렇게 잘했고 노력을 했다는 자찬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계선교를 향한 마음이 급하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서이다.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한 10/40 창 안에서의 성령의 선교사역은 엄청난 변화와 부흥을 맞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1,500여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끝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최대의 미전도종족 그룹은 이슬람권의 중동이다. 이 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5000km에 속하는 근접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을 바라보며 지도를 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지역의 복음화를 보면, 마치 화살이 과녁에 꽂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중동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공중파 방송이 있다. Mohabat TV이다. 그들 통계로 약 500만 명의 중동 크리스천들이 방송을 시청한다고 한다.

그들 추산으로 태어날 때는 무슬림으로 태어나, 후에 크리스천이 된 중동 현지인 성도의 수가 현재 8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다. 이들 국가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이란이다. 그 다음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난민을 수용하였기에 엄청난 기류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터키다. 이 나라들을 지도상에 연결하면 화살처럼 이어져 있다. 그 화살이 중동의 그 엄청난 문빛장을 뚫은 모습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의 성령의 역사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자각, 김중준,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기부하라! 나눔이 행복이다!

한국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세브란스’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종합 병원인 세브란스를 세우기 위해 지금의 가치로 5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세브란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작은 수첩에는 기부 약정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기부하던 곳에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기금까지 미리 조성을 해 놓았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명의로는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걸 나눴던 세브란스의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없이도 모두 자수성이 했고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수많은 병원과 도서관, 미술관을 설립하며 나누는 삶을 대를 이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받는 대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따르지 말고 명확한 목적을 세우십시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를 생전 혹은 사후에 기부하라고 권합니다. 워런 버핏 자신은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기부하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톰 래스와 짐 하터는 “웰빙 파인더”라는 책에서 “억지로라도 나누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노튼 박사 연구팀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밴쿠버 거리에서 5달러 봉투와 20달러 봉투를 무작위로 나눠주고,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봉투 안에 돈과 함께 메시지를 각각 하나씩 넣어 두었습니다. 메시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메시지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같은 시각까지 봉투에 담긴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금액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고 돈의 사용법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노튼 박사팀은 미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험을 하였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만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국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장소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선물이나 섬김을 받는 행복은 수동적 행복이라면 나누고 주면서 누리는 행복은 능동적 행복입니다.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큼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35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합니다. 오늘도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주는 자의 행복이 풍성할 것입니다.

한인 기독교 군인들 LA 시장 표창 받아

지난 3월 10일 오전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린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 정기 모임에서 한국 해군 예비역 제독 원태어 장로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았다. 가세티 시장은 원 장로가 LA 지역 공동체를 위해 지도적인 활동을 감당할 것을 감사하며 이 표창을 수여했고 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장인 김회창 목사가 대신 전달했다.



원태어 장로(왼쪽)에게 김회창 목사(오른쪽)가 표창을 대신 전달하고 있다.

또 김택규 목사(전 해군 중령), 최만규 집사(미 서부 육군 지부장)도 표창을 받았다. 한편, 기독교군인회의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차기학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영대 목사가 기도하고 원태어 장로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남가주목사장로총장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으며 김회창 목사가 “삭개오의 복귀”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우리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임화자 성가사가 찬양하고 곧 표창 수여식이 거행됐

다. 기독교군인회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영생장로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전 현직 기독교 군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268-9367

성결 남가주교역자회 정기 모임 열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가 파사데나에 있는 로고스교회(신동수 목사)에서 지난 12일 정기 모임을 열었다. 남가주교역자회는 교단 산하 엘

에이지방회, 엘에이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가 연합해 활동하는 교역자들의 연합 단체다. 현 회장은 엘에이동지방회 소속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이며 부회

장으로 남서부지방회 소속 이경원 목사(오렌지중앙교회), 총무로 엘에이동지방회 소속 김시은 목사(용기장이교회)가 섬기고 있다. 이날 모임의 식사는 로고스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문의) 909-677-0028

사누 아르멜 (SANOU ARMEL)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

열왕기하 6: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열왕기하 6:1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3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지 생도가 점점 늘고 있으니 교실과 방을 크게 넓히고 식당도 확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액의 헌금을 하게 하여 우리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즘을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공상맞은 예배 처소 사진을 찍어서 좀 힘 있는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협소하여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하여 헌금하게 하고, 멋지고 크게 시설을 확장하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너희 문제이니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라.' 하였습니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염치없는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독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직접 선지학교를 크게 지어 이전하자라고 합의 되었습니다. 교장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장소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게 지어 옮겼으면 합니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선지 생도들의 마음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장 선지자인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 도끼로 수십 번 그 나무 밑둥치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무를 찍다가 보니 빌려온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 생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당황한 선지 생도는 스승인 엘리사에게 빌려 온 것이라며 다급하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 바닥에 잠겨있다고 걱정하는 선지 생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자 스스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에게 "취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생도는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도끼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도끼자루 빠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일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선지 생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사에게 절대 순종하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에도 더욱 힘쓰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BC 84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겨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 선지학교 건립

그 당시 선지학교라는 것이 성경의 소개대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길갈, 벧엘 그리고 본문의 나오는 요단강이 인접한 도시로 여기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선지 후보생 생도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역사해서 사방에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이 선지학교로 모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시설이 지금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두세 배로 생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활공간이 상당히 비좁아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지 생도가 점점 늘고 있으니 교실과 방을 크게 넓히고 식당도 확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액의 헌금을 하게 하여 우리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즘을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공상맞은 예배 처소 사진을 찍어서 좀 힘 있는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협소하여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하여 헌금하게 하고, 멋지고 크게 시설을 확장하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너희 문제이니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라.' 하였습니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염치없는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독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직접 선지학교를 크게 지어 이전하자라고 합의 되었습니다. 교장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장소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게 지어 옮겼으면 합니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선지 생도들의 마음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장 선지자인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함께 요단에 이르러 나무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니다. 4-5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입니다. 4절에 언급된 "나무"라는 말은 "에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침"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으로 팔목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있는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굵은 나무를 뜻하는 단어로 기동감, 들보감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 굵은 나무를 베기 위해

3.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목적과 교훈

이것은 무슨 비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겠습니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그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 생도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선지 생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Wood \$49 / Crystal \$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299



교회 행사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추!!

거치대 무료증정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배너 36x120 \$49 / 부활절 배너 X-banner \$49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General Admission \$20
VIP \$120
(213.738.7140)

제3회

“신애원” 어린이 음악교육 기금 마련

나눔 콘서트

WITH MUSIC

April. 29. 2018 Sunday@4pm

USC Camilleri Hall
910 Downey way, Los Angeles, CA 90089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한국의 어린이 보육원 ‘신애원’의 어린이 음악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WITH MUSIC 어린이 합창단&앙상블

MB Projkt 재즈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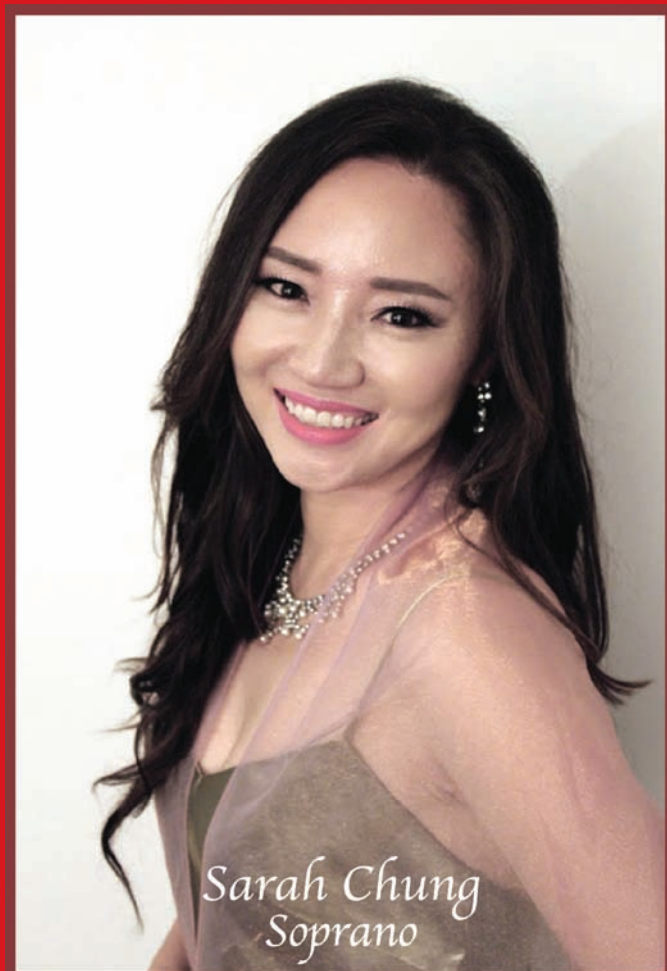
Hosted By



President
Joshua Lee



Vice President
Eileen Jung



Sarah Chung
Soprano



Brandon Park



Roy Kim



Aiden Kim



Princeton Lee



Matthew Suh



Itita Bruns



Heather Choi



Fiore Chung



Ailie Jang



Autumn Cho



Riley Kim



Ryan Uhm



Andrew Kang



Jiah Uhm



Lauren Cho



Elaina Choi



Jeanna Kim



Vivian Kwon



Eric Chung



Edward Min



Alexis Kim

Sponsored By



기독교일보 코너스톤교회 서울씨티교회 LA씨티교회 이충환 안과 임상우 변호사





2018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선교대회

“타코마에서 땅끝까지”

2018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선교대회 개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한, 내팔, 슬로바키아, 쿠바 등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각 국의 선교사들과 남침례교 소속 선교사들을 초청해 2018년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타코마에서 땅끝까지”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서북미 남침례교 목회자 및 타코마 지역 교회 목회자들도 참여해,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 사역 보고와 선교 전략을 나누며 서북미 지역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일본 고베 지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조바울 선교사는 “선교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라며 반일 및 반한 감정으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일본 선교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30년 동안 쿠바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경식 선교사는 “현재까지 쿠바에 7개 교회를 개척했고 죽는 날까지 3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며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현지인들을 직접 교육하고,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건립했다”고 전했다.

정 선교사는 또 쿠바 현지 사정을 나누며 쿠바 선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

는 “현재 쿠바의 경제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선교 방문 시 특히 의약품의 필요가 절실하고, 심지어 빵을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과 교회에 쿠바를 향한 관심과 기도, 선교 지원을 당부했다.

특별히 선교대회에는 보안과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북한과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과 세미나를 통해 선교의 큰 도전을 심기도 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선교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다”며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선교 축제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을 준 것보다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 선교지로 돌아간다”며 “선교사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들이 사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교지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애틀 형제교회

“Breakthrough 세상을 향해”

2018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가 “Breakthrough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미주를 비롯해 해외 각지에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이 참석하는 이 컨퍼런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 주제 강의 함께 목회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돼, 목회의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컨퍼런스 강사로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를 비롯해 달라스 세미한교회 최병락 목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폴 김 EM 목사 등이 나서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박종호 성가사도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형제교회 컨퍼런스는 건강한 리더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간이다. 또한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3월 15일부터 시애틀 형제교회 웹사이트 www.hyngiae.org에서 가능하며 등록비는 4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100달러, 이후는 120달러다. 유료로 호텔 숙박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무료 민박도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애틀 형제교회 425-488-1004 또는 info@hyungiae.org 할 수 있다.

폴 원 기자

뉴욕목사회 첫 부활절찬양제 연다

제46회기 대뉴욕지구인민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오는 4월 1일 부활주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 ‘부활절 연합찬양제’를 연다. 뉴욕목사회가 부활절에 특별히 연합행사를 찬양제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목사회는 “부활의 생명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취지로 ‘부활절 연합찬양제’를 열고자 한다”면서 “찬양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며 지역교회와 목사회가 연합하고 한인들이 희망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목사회는 이번 행사와 관련, 교계와 실업인, 목사회가 연합하는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목사회는 출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문의: 김주동 목사(서기) 636-579-0067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사역을 위한,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향을 증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행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씨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어침례부 오후 1:30 오영미 화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침례부 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말씀) 오전 5:30
리셋해결연예 (소매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사랑되고 자유와 화평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기 위해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침례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종교개혁기념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골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윤 목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조승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서보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cg.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Pinale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63-5887 T. (626)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정의를 국가안보실장(왼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가짜 평화 아닌 진짜 평화 오길”

한국교회언론회 “북한의 근본적 변화” 촉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바라보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평화의 진정한 물꼬가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과연 북한 당국은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 당국의 비핵화(핵 폐기) 제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언급했고,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은 이미 판명 난 상태이고, 북한이 계속 ‘속이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우리 측 대표단이 귀국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저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매체를 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고, 반미 시위를 부추기는 논평도 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북한은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가? 한마디로 자신들이 ‘경제 고사 위기’를 맞게 되니, 평화와 회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벌기’와 ‘위기 모면’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은 ‘속임수’의 대가”이므로, 우리 정부도 또 다시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김정은에게 속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역사 이래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 측을 향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평화나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거나, 또 국민들 간에 국론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보다 북한 2,500만 주민의 생존, 그리고 그 생명들의 ‘천부 인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70여 년간 북한주민을 불모로 독재와 인권탄압, 무고한 희생을 치르기도, 깊이 누워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체제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괴와 한국민의 국론분열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정은 정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참회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거짓과 위장된 북한의 평화 행태에 속아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저들의 정권유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이런 국민들의 염원과 세계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제30회 목회자자녀세미나가 열렸다.

“목사인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성황리에 종료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주최한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지난 2월 19-21일 오산성운동산에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박태남 목사(벤엘교회), 문경원 목사(원천교회),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임우현 목사(징검다리 선교회 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JGM 대표),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하귀선 선교사(세계테미널선교회) 등이 감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공성경 자녀는 “주님을 한 번 더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세미나여서 너무 감사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주는 자녀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우리 남매 모두 잘 커서 셋 다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도 잘 다니니까 더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랑한다”고 했고 이 루디아 자녀는 “사랑한다. 하나뿐인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다.

한하영 자녀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 않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했고 연은주 자녀는 “부모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목회자사모신분 발행인이며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인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첫날 어색해 하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화색이 들고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영화 '블랙 팬서'의 한 장면

블랙 팬서에 스타트맨 출연 배우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배우 “세트장이 교회 같아” 간증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 팬서'(Black Panther)에 스타트맨으로 등장한 트레비스 러브(Travis Love·39)가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다.

러브는 “경쟁이 치열한 할리우드에서, 블랙 팬서와 같은 블록버스터에 스타트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러브는 이미 '워킹 데드'나 '더 헤브즈앤더 헤브즈'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지만, 영화 블랙 팬서에서 맡은 자바리 부족의 전사 역할은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친구가 영화의 스타트맨 역할을 권유했을 때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스타트맨들이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기 전 엄격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러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을 준비해주셨다고 믿는 이유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는 3분 뒤에 나를 다시 부르더니 ‘그들이 너를 오늘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블랙 팬서'와 같은 영화 속 스타트맨 역할을 위해 스타트맨들은 많은 훈련을 받고, 리허설과 연습을 한다. 하나님이 이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러브는 스스로 겸손한 신앙인임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연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블랙 팬서에서 스타트맨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난 무섭고도 훌륭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들이 나오게 될 미래에 보다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블랙 팬서에는 러브 외에도 사면 역할을 맡은 소프 알루코 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 알루코는 “계속적인 기도 모임과 신앙적인 나눔으로 세트장이 마치 교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민간인들 끔찍한 지옥에 갇혀” 시리아 동구타 영속적 휴전 촉구

월드비전, 시리아 긴급구호 카테고리 III 선포

월드비전에서 “시리아 내전 사상 최악의 폭격을 겪고 있는 시리아 동구타 지역의 영속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27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5시간씩 휴전을 발표했지만 수백 명이 사망한 동구타 사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동구타 지역의 영속적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 내전 7주년 기념일(3월 15일)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지옥에 갇혀있다”며 휴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최고 재난대응단계인 '카테고리 III'으로 선포했다. 현재 월드비전은 정부군의 봉쇄 조치로 접근이 어려운 동구타 지역을 제외한 시리아 및 시리아 인근 국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에서 아동들을 위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월드비전 시리아 긴급구호사업 본

부장 윈 플레이턴은 “동구타 지역 민간인들은 도망칠 곳 하나 없이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며 “영속적인 휴전을 통해 하루 빨리 피해자들에게 식수와 음식,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타(Eastern Ghouta)는 지난 2월 18일 오후부터 식량과 물자 등의 공급이 차단된 지역봉쇄 상태에서 공습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공습 12일째인 3월 1일까지 아동 149명을 포함한 민간인 61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상자는 2600여 명을 넘어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 동구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중단시키고 물자공급과 의료후송을 위한 휴전결의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포격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한 사상자도 최소 13명을 넘어섰다.

강해진 기자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평양총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EM*영아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Nachi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562) 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목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태 오전 11:30
KMC대학원대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M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 M (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심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3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n.org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1. 찬양 사역자
- 2. 유초등부 전도사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제출기한 : 2018년 3월 31일 까지

Email : info@bethelchurchsoca.org

교회 주소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남가주베델교회 BETHEL CHURCH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교역자 청빙

LA동부지역의 글로벌선교교회(담임:김지성목사)는 제자훈련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길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모집영역

- 장년 담임 교역자 (풀타임)

자격

- 개혁신의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자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소유자
-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
- 자기 소개서(가족소개, 자신이 섬겼던 사역, 최근 본인 사진 및 가족사진)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본인 설교 CD 혹은 파일
- 추천서 2부 (담임목사 혹은 신학교 교수)
- 취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서류제출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이메일: igmc.org@gmail.com



청 / 빙 / 위 / 워 / 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용사로 나타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God the Warrior)은 이집트와 싸우셨으며,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주민들과 싸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와 싸우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용사이신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신 하나님”(the crucified God)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전능의 하나님은 가장 약한 모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분은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인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경은 어린양의 실패와 죽음을 비참함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양의 승리를 소개합니다.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악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악함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죽임 당하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양” 혹은

“속죄양”(scapegoat)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함으로 인간의 완악함과 완력을 폭로시킨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의 표상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신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19:16)이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Faithful and True)이며 “하나님의 말씀”(계19:11, 13)입니다. 재림 주는 만국을 치며, 절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백마를 탄 그

리스도는 짐승과 표적을 행하는 거짓선지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 노릇을 한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유황불 못”(계19:20)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용사가 되셔서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holy war)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종말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싸우는 모습은 혹 우리 성도나 교회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청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역사 속에서 이러한 관점은 이교도에 대한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군인인 성도, 즉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십자군”이라는 열망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습니

다. 이러한 오해는 교회 자신을 정의의 군대로, 상대방을 박멸하여야 하는 악의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교회나 혹은 일단의 종교 세력이 말할 수 없는 파괴와 살육의 주체가 되곤 하였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심판주의 역할을 역사 속의 교회가 시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변함없는 표지입니다.

말무덤(言塚)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계속 확산되어 가는 미투 운동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거 좋아했던 연기와 배우들도 갑자기 사과하고 취소하고 사라지고 있고, 모 대학 연극영화과 남자 교수 전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 번져가는 미투 운동을 문제인 대통령도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는 입장에 가속이 붙어 더욱 용기를 내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위치 때문에 가진 권력을 남의 것을 착취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말무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예천군에는 말무덤이란 게 있습니다. 달리는 말(馬)이 아닌 입으로 말하는 말(言)의 무덤으로 언총(言塚)입니다. 말무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에 여러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 말싸움의 원인과 처방을 찾아 고민하던 중, 사발 하

가? 한다고 하는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3:6). 심지어 “말(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약3:3). 마치 말(言) 장례를 치르라는 말과 흡사합니다.

성도들은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해 주는듯 말은 하지만, 남의 염장을 지르는 어리석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전하는 지혜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형체가 없다고 그냥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애리게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말무덤이 필요한 곳은 없을까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가정의 식탁에서, 찬송 소리만 있어도 부족한 교회 가는 차 안에서, 격려와 사랑만 있어야 할 카톡방에서, 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을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묻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뭇 가지와 싸움의 말단이 된 말썽 많은 말을 뱌어 사발에 담아 파묻고 소위 말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부터 마을의 싸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져 이웃 간에 정이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입을 열지 모릅니다. “내가 참다가 당신 생각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습니다.” “당신 애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으로 시작되는 영양가 없는 말들과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비난한 말들이 오늘의 갈등과 소원함의 원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약1:19)고 하지 않습니

자기열심과 자기부인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열심은 일을 성사시키는 열쇠이고 원천이다. 열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성사될 수 없다. 나태함과 게으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창조적 열심에 기인했고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의 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열심있는 자를 부르시고 열심있는 자를 통해 그분의 열심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열심에는 자기열심과 자기를 부인하는 열심이 있다. 자기열심은 자기가 드러나는 열심이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며 자기의식으로 가득한 열심이다. 자기열심은 자기 일에 철저하고 자기로 인해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다. 열의 성패에 따라 자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성공하면 교만이고, 실패하면 회한과 분노가 따른다.

자기열심은 종종 신앙의 이름을 빙자하기도 하고 종교의 옷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회심 전의 바울(사울)은 이런 유의 표본이다. 사울은 최선의 열심을 갖고 율법적으로는 흠없는 자가 되려 하였고 마침내 신의 이름을 빌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처단하였다. 종교적인 자기열

심은 최종적 목표는 자기 의(義)이고 자기 성취에 있다.

이런 열심은 베드로의 초기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 베드로(시몬)의 자기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순간순간 앞자리를 놓치지 않게 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열심은 두려움 뒤로 숨어 버렸다. 자기열심은 항상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하고 환상을 불러 넣지만 자기의 한계 속에 머물고 만다.

열심에는 또 다른 열심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열심이다. 이것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런 감격을 체험한 열심이고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열심이

며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열심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된 후의 열심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열심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 거절된 열심이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기에 가능한 의식적, 무의식적 자기거절이 밀바탕된 열심이다. 여기에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선명한 의식만이 자리한다. 더 이상 자신이 주목될 필요가 없다. 모든 수고와 고통도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고백 앞에서 사라질 뿐이다. 자기가 부인된 열심은 자기 희생이란 용어로 자신이 오도되는 것을 받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던져 버렸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승리한 역사는 바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천국은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광채는 이들 속에서 빛난다. 지금도 이 열심으로 무명의 행보를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있 으리!

한국문화회관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즐기세요~”

초대형 럭셔리 크루즈
프린세스 에메랄드

푸른투어
북태평양 (빅토리아) 크루즈와 캐나다 로키를 함께... 9일
\$1,790 ▶5월9일

- 모든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 외 수영장,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 코트 등]
- 문화 시설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바, 미팅룸, 도서관, 인터넷 카페, 아트 갤러리]

▶ 로스앤젤레스-빅토리아-밴쿠버-자스퍼-밴프-캘거리-로스앤젤레스

- 1) 안달루 한국기원 프로그래머 9년 동행 바둑강좌 및 다문화 대국
- 2)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 대학 학자금 세미나 / 소액 CRA LOAN 세미나

KORUS TOUR

푸른투어 213.739.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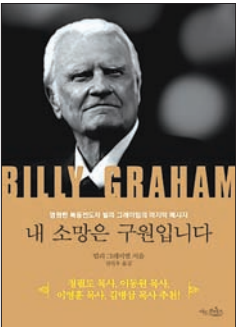
317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prttour.com

“빌리 그레함 없었다면, 복음주의 존속할 수 없었을 것”

책으로 만나는 빌리 그레함

“소망은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절대적 확신이다. 너나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아픈 마음에 소망은 위로를 준다. 소망은 참아내고, 설득하며, 승리한다.”

21일 천국으로 '이사'한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은 설교로 유명했지만, 많은 저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내 번역된 그의 가장 최근 도서는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아드폰테스, 원제 The Reason for My Hope: Salvation)>이다.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아드폰테스 | 340쪽

“구조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 첫 설교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에서 빌리 그레함(그레이엄)은 비행기 사고를 당한 자신의 경험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사고와 거기서 살아남은 또는 살아남지 못한 사례를 한동안 언급한 뒤 구원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좀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구조될 때는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이타적이고 용감한 사람도 우리를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구조될 희망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단지 누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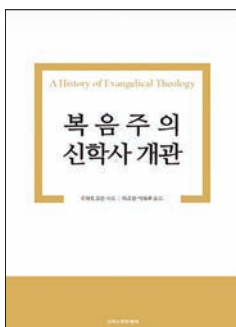
빌리 그레함은 “구원받을 것이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거의 백년을 살면서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면서 속량과 죄, 천국과 지옥,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신자의 삶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빌리 그레함은 책 곳곳에서 강한 확신을 기초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잇따라 던진다. 독자들이 가진 선입견과의구심을 흔들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마치 그가 평생 해 왔던 집회를 재현하듯 '영접기도'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따라 읽은 기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는 고령의 나이에도, 자신의 주소까지 적어놓으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다고 했다.

빌리 그레함의 책은 이 외에도 <마지막 경교(베드로서원)>, <새로운 도전(두란노)>, <인생(정림출판)>, <천사 하나님의 비밀특사(생명의말씀사)>, <빌리 그레이엄의 소망(홍성사)> 등이 있다.

◆복음주의 관련 서적에서 보는 빌리 그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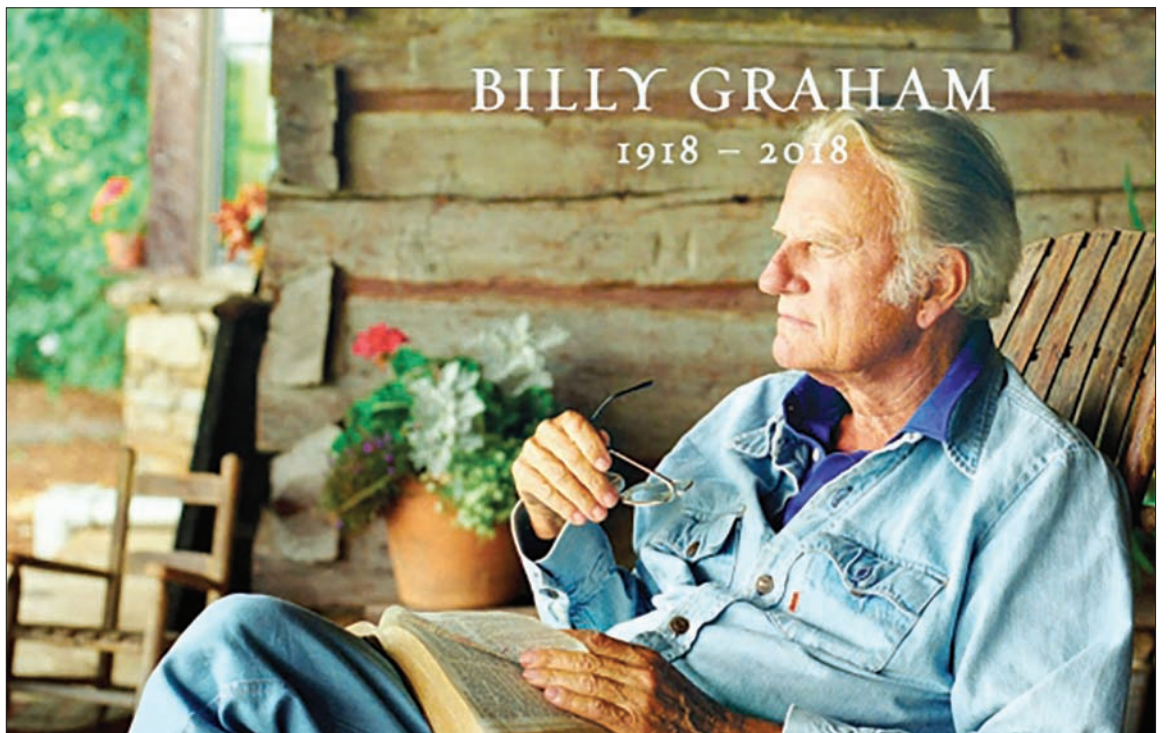
직접 저술한 도서들 외에도, '복음주의'와 관련된 책에서는 대부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최근 나온 로저 올슨(Roger E. Olson)의 <복음주의의 신학사 개관>이 대표적이다.



복음주의의 신학사 개관
로저 E. 올슨
크리스천투데이 | 236쪽

당시 주류였던 전투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근본주의를 밀어낸 '신(新)복음주의', 즉 1942년 전국복음주의협회(NAE) 창설로 태동한 후기근본주의 신복음주의 연합은 다양성과 느슨한 연대 때문에 당초 성공이 힘들어 보였으나, 빌리 그레함이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빌리 그레함과 그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복음주의와 복음주의 신학 어느 편도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그레함의 양대 주제는 개인적 회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이다.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 추모 사진 ©B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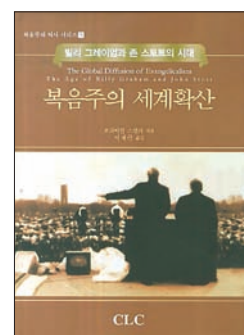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쓰여졌고, 믿음과 실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빌리그레함전도협회(BGEA)와 1947년 오켄가가 설립한 '초교과복음주의' 풀러신학교(Fuller),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알릴 잡지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ity Today)'는 이후 복음주의의 중심점이 됐다.

복음주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 역시 빌리 그레함으로부터 나온다. “복음주의 내부의 다양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생존하여 복음주의 연합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동안 두 그룹(칼빈주의-아르미니우스주의) 간 긴장은 그저 수면 아래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레함 목사의 은퇴나 사망으로 '그레함 목사는 접착제(Graham glue)'가 녹아버리면, 교리적으로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복음주의자들과 웨슬리주의를 포함하는 방어적 아르미니우스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서로 결별하게 되고, 이로써 복음주의 연맹은 해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기독교학을 연구하는 영국 에든버러대 브라이언 스탠리(Brian Stanley) 교수가 쓴 <복음주의의 세계 확산>은 아예 부제가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의 시대'이다. 영국 IVP의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 일환인 이 책은 20세기 후반, 이전과 달리 서구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형성과 전개를 다루고 있다.

스탠리는 “빌리 그레함이 1949년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그리스도께로' 집회를 열면서 성급하고 젊은 남침례교 전도자로 미국 언론의 헤



복음주의의 세계 확산
브라이언 스탠리
CLC | 424쪽

드라인을 처음으로 장식하기 전까지는 그를 근본주의 전통에 속한 수많은 다른 부흥사들과 구별할 만한 요소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소식이 주요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방송인이자 경주마 소유자 스투어트 램블렌, 전직 올림픽 선수 루이스 잠페리니, 약명 높은 조직폭력배 짐 바우스 같은 지역 유명인들이 회심하면서 그레함은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심대선교회(YFC) 소속이던 그레함은 1948년 9월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BGEA)'를 설립했고, 1957년 풀러신학교 이사로 임명됐다. 스탠리는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 명사라 불릴 만한 지위를 얻은 20세기 후반의 유일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다”며 “역사상 다른 어떤 복음주의자도 그레함만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세계적 명성을 누리지 못했다. 그가 얻은 국제적 공인의 지위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시각 매체에 힘입은 바 컸다”고 소개한다.

또 “그레함의 국제 사역이 어떤 분명한 문화적 재앙 없이 이토록 광범위한 지리적 확장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그의 전도대회가 모든 상황과 배경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놀랍다”며 “그레함은 1960-1980년대 내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강행군을 이어갔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해외 사역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레함의 국제 사역이 복음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단지 지리적 확산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스탠리는 “BEGA는 마치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식 대표로서 전 세계 통합 네트워크를 가진 것처럼,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때까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그레함 전도단과 자신들을 연관지은 다양한 국적의 기독교인은 특정한 가족 연대와 소속감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을 세계 기독교 지도의 특정 지역에 위치시킨 것이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채찍질교회의 입구



채찍질교회의 내부 제단 정면,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창문으로 보인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5)

피 흘리시며 희롱 당하신 곳, 채찍질교회

빌라도 법정(안토니오 요새, BC 22년 헤롯대왕에 의해 건축됨. 로마의 수비대장 이름인 마크 안토니의 이름이 요새명이 됨)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주님은 브라이도라운(막 15:16)이라 불리는 관정으로 끌려 들어가서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 옷 벗김과 흉포 압해를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씌움을 당하셨으며 군병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희롱과 침 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셨으며 곤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같은 거리에 있는 채찍질교회 입구로 가면 채찍질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가시면류관 형상의 돌 모양이 교회 정문 위쪽에 아치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교회는 1618년 마굿간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한 때는 직물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8년 이브라힘 파사가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의 후원으로 이 땅을 구입하여 1839년 교회로 복원하였다. 1927-29년에 12세기 풍으로 단장하였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자. 길이 30m 정도, 넓이 10m 정도의 크기를 가진 아담한 예배당은 3개의 스테인드 글래스가 온통 우울한 색채를 띤다. 제단 정면의 모자이크에 그리스도의 수난(채찍질을 당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좌우에는 해

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바라바의 모습(마27:21)과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마27:24)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정을 보라. 가시면류관이 처절하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슬픈 모양을 보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채찍을 당하신 현장으로 1900년 초에 선교회회를 지은 로마 천주교회가 함께 건축한 기념교회이다.

아프고 아픈 채찍질

잠시 주님의 채찍질 모습을 살펴보자. 최근에 예루살렘 서북쪽 지역인 라못에쉬콜 동네에서 발견된 주후 1세기 무덤에서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큰 못이 박혀 있고 발바닥이 아닌 발목에 대못이 박혀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늘 그림에서 보고 아는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못을 박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몸의 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정시키기가 어려워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십자가를 박게 된 것이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 이야기를 한다. 도마의 의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손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못 박힌 부분은 손바닥이 아닌 손목임이 확실하다.

당시 채찍은 여덟 가닥의 낚으로 된 끝자락을 가지고 있고 손목에 쥐기 좋은 정도의 나무로 만든 몸통을 가지고 있다. 이 채찍으로 한번 칠

때마다 죄수들의 살이 찢겨나가고 피범벅이 된다.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통하여 반 혼수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한다.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희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이다. 주께서 고난 당하신 현장에 제자들은 동참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셨다. 제자들은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주님이 홀로 외롭게 채찍을 당하셨다.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더란 말인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고난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회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렇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채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미혹한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의 채찍에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자.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지금도 주님의 채찍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채찍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바라보라.

올라가자 골고다 언덕으로

채찍질교회와 선교회회는 로마 교회가 정해놓은 십자가의 길 14개 기념처 중 첫 번째이며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시작하여 약 700m 정도 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보자.

이곳에서는 무게가 약 30kg 정도 되는 십자가와 6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빌려주기도 한다.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빌려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기도 한다. 육신

의 십자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로 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출발해 보자. 평생 걸어보고 싶은 길 중에 가장 견고 싶었던 십자가의 길을 실제 나무로 만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아니면 마음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부르며 가든지, 골고다 저 부활의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 보자.

주변 장사꾼들의 고객 행이나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우리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주께서 저 언덕에서 우리를 오라 부르신다. 채찍질의 아픔과 무서움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가자.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것 같다.

(계속)



채찍질 교회 내의 창문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3월 22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역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에서 베트남의 요나로 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감격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베트남 1호 파송선교사 장요나 선교사 초청 부흥성회

세상에서 잘나가던 사람, 어느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사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너는 베트남의 요나가 되라.”

일시 : 3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나눔과섬김의 교회
278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전화 : 213-272-6031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많은 도전 있지만 한국교회 향한 기대 커”

한국 방문한 팀 켈러 목사 기자간담회

「센터처치」 등 여러 복음주의 서적으로 한국 내에도 잘 알려진 팀 켈러(Timothy Keller)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켈러 목사의 방한은 시티 투 시티 코리아(City to City Korea; CTCK) 초청으로 성사됐다. 켈러 목사는 지난 7월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담임직에서 물러나 도시교회개혁 네트워크인 '시티 투 시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CTCK는 이 사역을 한국에 소개하는 단체다.

켈러 목사는 지난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평신도 컨퍼런스를 갖고 5~7일에는 온누리교회 양재 햇빛회관에서 열린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나섰다.

켈러 목사는 28년 전 뉴욕 한 복판에 리디머장로교회를 개척했고, 이 교회는 현재 약 5천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의 목회자들의 그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54개 도시에서 38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 <뉴스위크>는 그에게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켈러 목사는 6일 양재 햇빛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티 투 시티(City to City, 이하 CTC)'와 '시티 투 시티 코리아(City to City Korea, 이하 CTCK)'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CTC는 복음으로 도시를 섬길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56개 도시에서 421개 교회를 개척했고, 13,000명 이상의 도시 교회개혁 지도자를 양성해 50개의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CTC의 지원으로 한국에도 CTCK가 생겼다.

-CTC가 '도시'를 주요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CTC는 뉴욕시에서 시작됐다. 30년 전 뉴욕 한복판에서 리디머장로교회를 시작했는데, 뉴욕의 많은 직장인이 교회를 가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1991년도에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단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도시 한 복판에 교회가 없다'며 '도시를 어떻

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게 전문성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도심에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하도록, 도시를 전도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훈련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머지않아 중국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시골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잘 하고 있었는데 도심에서의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CTC 조직이 만들어졌다.

우린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개척자를 선발해 현지 사람을 세운다. 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주고 지시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상하이나 베를린, 상파울루, LA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 여러 도시들의 목회자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그래서 보다 펠로우십 형태에 가깝다. 큰 도심 가운데서 현지의 목사님들이 지역 사람을 전도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떤 교단에 속하거나, 하나의 교단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한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농촌과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농촌과 소도시에 대한 대안은 없나?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미국 대선에선 대도시 사람들에 대해 시골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출했다. 세계 곳곳에서 대도시와 소도시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 개척을 돕고 있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로 한 가지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골 지역을 무시하진 않는다. 사실상 시골 지역에도 계속 새로운 영적 필요가 있고 새로운 교회들이 필요한데, 우린 그곳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곳에 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한국에서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할 때 문화를 접목한 목회를 선택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CTC와 다



팀 켈러 목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른 점이 무엇인가?

CTC는 단일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단일 모델을 제시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방식, 비전통적 방식, 어떤 방식이든 교회에서 맞는 방식을 찾아 교회에서 하도록 한다.

-예배에 대한 관점과 스타일, 예배 음악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CTC는 한 가지 예배 음악 스타일을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 예배 스타일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첫째는 예배가 일어나는 문화, 특정 부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어떤 스타일로 드리는 게 예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학과 교단이라는 이슈다.

CTC는 많은 교단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적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교단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성공회에서는 특정한 종교의 예배 스타일을 갖고 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들이 개척하는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시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는 무엇보다 이런 이들을 전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싫어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들 중에는 좋은 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답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저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왜 교회를 가지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기 싫어하고 그냥 맘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만 할 수 없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야기 해야 하는데, 교회는 좋지 않은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임을 직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질문할 때 많은 대답이 도움이 된다.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다. 기성교회 목사라면 질문한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

겠다 약속을 주기 어렵다. 그렇지만 교회 개척자이고 적은 수로 시작하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와서 참여하고 도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분의 1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해도 비판을 듣는 건 중요하다. 비판을 피하는 교회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느낀 계기가 있는지?

아내가 있으면 더 잘 말할 것 같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하듯,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기에,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 기적으로 느껴지기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자비롭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자비로우셨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부분인데 전 일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내게 성공할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며 다른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이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관대한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을 줬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 같다.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교회가 소극적인 면이 있다.

복잡하지만, 간단한 대답을 드리겠다. 어쩌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이야기하길 싫어한다. 힘이 있는 남자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관계를 요청하는 것이 전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많은 자매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극우 성향의 복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칼럼을 뉴욕커에 썼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칼럼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었던 요점은 기독교를 특정 정파 하나로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됐단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 미시시피에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의 크리스천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자였다. 높은 세금과 큰 정부를 지지하면서, 전혀 다른 경제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저를 사회주의자가 되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정치적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정치 스펙트럼 여러 곳에 크리스천이 다 있을 수 있단 것을 전 인정한다. 뉴욕커 칼럼을 통해 말하려는 했던 것은 특정한 정파에 고립될 수 없단 것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 정파 하나에 그리스도교회가 묶이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이입집단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신뢰를 잃은 상태다.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북미와 유럽에서 교회는 거의 정치적 권력과 동일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특정 국가권력과 동일시됐다. 그런데 교회가 강력해지는 상황, 큰 건물이 있고 많은 돈이 있을 때, 일부 비율의 크리스천 지도자는 권력과 부에 무릎을 꿇고 부패하게 된다. 반면 인도와 같이 교회가 약한 곳에는 교회들이 힘이 없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인도 사람인데 크리스천이면 이상하게 보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부패한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교회가 약하면 사람들에게 약하지만 존경 받는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면 부패 때문에 존경을 잃어버린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종류의 권력으로 교회에 대



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란 주제의 평신도 컨퍼런스 모습

한 거부감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디쯤 위치하는가?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서양교회와 동양교회의 중간 지점에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큰 교회다. 유럽만큼의 권력에 다다른 적은 없지만, 어떤 유혹과 권력 문제에 직면할 만큼 한국교회가 커졌다.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엔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권력의 남용과 억압 부분을 덮거나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인정하는 데 능숙하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인 수로 교

회 목회의 성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인 수를 더 늘리고 싶진 않은가?

늘리고 싶지 않다. 작년에 저희 교회를 세 개로 나누었다. 그리고 3명의 담임목사가 별도로 있다. 전 거기서 은퇴했고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다. 제가 요청한 것은 각각의 세 개의 교회가 각각 분립해서 하도록, 교회를 나누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2년 안에 한 개의 큰 리더교회와 12개의 작은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이 목표다.

저의 주된 목표는 하나의 큰 교회를 갖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 한 개의 큰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주된 목표다. 교

회가 성장하면 어떤 지위나 힘을 내려놓고 나누어지는 게 힘든 일인데, 예수님도 권력과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다.

-CTCK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있다면?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다. 한국은 규모와 수에 있어서 아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 실제적인 교회와 성도가 존재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국교회 또한 같이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0년 간 한국교회의 역사는 아주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였다. 비기독교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또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도심지역에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CTCK의 일이다. 이것이 전세계 60-70% 대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될 기회다. 여러 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많이 배워야 하고 한국교회도 여러 나라, 교회로부터 많이 배워야 한다.

다른 도시 문화권에서 보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교인들을 위해 문밖에서 문 안을 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전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와 훨씬 더 잘 연결돼 서로 서로 돕는 교제가 되길 바라고, 한국 도심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김신의 기자



5일 양재 햇빛회관에서 열린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모습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활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원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가 함께하는



사랑의 크루즈

“은 가족이 ‘꿈’이란 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좋은 힐링시간이 됐습니다”
-에밀리 1기 참가 가족-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is trip was not only a vacation opportunity, but a time of growth and healing that could never have happened back home.”
-황지혜 1기 참가 가족-

“받은 사랑 만큼 그보다 더 크게 돌려서 나누며 살도록 할게요”
-제임스 강 1기 참가 가족-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의 크루즈를 다녀오며 제가 붙인 부제입니다.
무한한 인생의 가능성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슈아 엄마 1기 참가 가족-



한인사회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나눔 프로젝트 2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무료 3박 4일

울림과 힐링이 있는 여행!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행복과 여유를 누리는 가족 힐링여행!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선상 위 아름다운 추억!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가 소통과 재충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준비 했습니다. 매년 수익의 10%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온 오픈뱅크의 나눔에 사랑과 감사가 보태져 감동을 더합니다!



신청 대상

고단한 이민생활에서 벗어나 따뜻한 삶을 나누고자 하는 가족 모두에게 무료로 사랑의 크루즈를 함께 떠날 기회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대화나 관계가 소원했거나 휴식시간을 함께 갖지 못했던 부부,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신청방법

‘우리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애뜻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1차 사연 선별 후 개별 방문을 거쳐 선정된 최종 30여 가정은 사랑의 크루즈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우편참여 : RadioKorea (아침마당 담당자 앞)
3700 Wilshire Blvd. # 600, Los Angeles, CA 90010

카카오톡 : radiokorea1540
홈페이지 : radiokorea.com/radio (아침마당 청취자 게시판)

신청날짜

2018년 4월 13일 : 사연 신청 마감
2018년 4월 16일~30일: 1차 선별 가정 방문 인터뷰
2018년 5월 1일 : 최종 선정후 개별통보

다양한 프로그램

라디오코리아 최고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 진행자 우정아, 김형준씨와 사회 저명 초청 강연자분들이 함께 배에 올라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푸짐한 경품

3박 4일 여행기간 내내 펼쳐질 다양한 이벤트들을 위해 푸짐한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 이번 나눔 이벤트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우정아, 김형준 진행자와 엘리트 투어 빌리 장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정기준과 판단은 주관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213) 487-13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세요.